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자료

- 순서 -

- I. 개요
- II. 결산
- III. 시상
- IV.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 V. 아시아영화펀드 결산
-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결산
- VII.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I. 개요

1. 기본 개요

- 기간: 2016년 10월 6일(목) ~ 15일(토)
- 69개국 299편 상영 (2015년 75개국 302편 상영)
- 상영관: 5개 극장 31개관(마켓 및 P&I 스크리닝 상영관은 제외)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CGV 센텀시티, 영화의전당,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메가박스 해운대

2. 총 관객수: 165,149 명

3.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월드 프리미어: 94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30편

4. 아시아필름마켓

- 마켓배지: 총 47개국 742개 업체 1,381명
- 세일즈부스: 총 24개국, 157개 업체, 62개 부스
- 마켓 스크리닝: 총 13개국, 42개 업체, 63편, 68회 상영(마켓 프리미어 50편)
- 예산 감소 및 BIFCOM의 독자 개최 등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일즈부스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 참가자는 소폭 상승, 신규 바이어는 증가
- 아시아필름마켓은 작년에 이어 E-IP마켓에서 연이은 현장 계약들이 성사됐고, 아시아 국가관, 해외 세일즈사, E-IP 관련업체, 웹툰, 출판사 등 다양한 산업군을 포괄한 엔터테인먼트 토탈 마켓으로써의 가능성 확장



5. 아시아영화펀드

- 2016년도 지원 내역
 - ✓ 장편독립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총 5편
 - ✓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 총 5편
 - ✓ 다큐멘터리 AND 펀드 총 12편 8
-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극영화 8편, 다큐멘터리 8편

6. 아시아영화아카데미

-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 <안녕, 삼촌!> Hello, Uncle! | HD | 20min | Color
 - ✓ <씨클리드> Cichlid | HD | 15min | Color
- 워크숍 및 멘토링, 특강 진행
- 올해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역대 AFA 졸업생들과 AFA 2016 펠로우들이 함께 교류의 장을 갖는 AFA 네트워크 1회 개최, 참석인원은 총 60여명
-



II. 결산

1. 세계영화인의 연대를 확인한 영화제

세계의 많은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 쟁취를 위한 기나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였고, 직접 영화제를 찾음으로써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영화제의 독립성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며 영화제의 근본임을 보여주었다.

2. 안정적이었지만 많은 과제를 남긴 영화제

한국영화계의 지지를 완전히 끌어내진 못했지만, 안정적인 영화제를 치러내기 위해 부족한 시간과 여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영화제였다. 특히 첫 민간 이사장체제 하에서 치러진 영화제라는 의미 있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새로운 영화들과 신인감독들에게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작가의 새로운 발견과 소개라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체성과 가치를 다시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다.

3. 관객들의 사랑과 소중함을 재확인한 영화제

태풍과 지진,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어온 과정 등 많은 악재는 분명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분위기와 열기, 그리고 관객의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전히 영화제를 찾아주시는 관객들과 영화인들을 보며, 관객들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주인이자 든든한 밑거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관객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과 서비스향상을 통해 더욱 보답하는 영화제가 될 것이다.

4. 아시아필름마켓, E-IP마켓 성장 등 내실 다져, 신 성장동력 확보

다양한 산업군의 세일즈부스 확장,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 마켓의 연이은 계약성사,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통해 아시아필름마켓은 탄탄하고 내실 있는 거래의 장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활발한 세일즈부스들의 비즈니스와 향후 아시아 E-IP의 허브로 도약할 미래 비전을 제시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III.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1: <깨끗한 물속의 칼> / 왕수에보(중국)

심사평: 후이 초원이라는 아름다운 장관을 배경으로, 이 영화는 주인공들의 주름진 얼굴을 통해 비탄과 자유에 관한 시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는 이들이 단순하지만 가혹한 전통의식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나타납니다.

수상작 2: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 / 장치우(중국)

심사평: 고요한 성숙함 속에서, 감독은 인간성과 희생에 대해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끓어 넘칠듯한 묘사를 근본적인 감정을 담아 만들어냅니다. 또한 탄탄한 대본은 깔끔한 호흡과 최고의 연기와 함께 이미지로서 잘 표현되었습니다. "운명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결말은 가슴을 울립니다.

특별언급: <이별> / 나비드 마흐무디(아프가니스탄)

심사평: 뉴 커런츠 심사위원(단)은 나비드 나흐무디 감독이 아프가니스탄계 이란 영화인으로서 첫 데뷔 작품으로 이란 내 아프간 난민 문제를 다룬 용기를 높이 인정하여, 그의 작품 <이별>을 특별언급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솔레이만 시세(감독 / 말리)
- 심사위원: 구니트 몽가(프로듀서 / 인도)
 - 베로 바이어(로테르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네덜란드)
 - 장률(감독 / 중국)
 - 마흐무드 칼라리(감독 / 이란)



2. 비프메세나상

수상작(한국): <옆집> / 성승택(대한민국)

심사평: <옆집>은 편견과 공포로 감춰진 세계에 다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감독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용기 있게 이를 뛰어 넘는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상작(아시아): <폭동의 시절> / 세론 다육(필리핀)

심사평: 필리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담은 "폭동의 시절"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감독은 기록된 장면들과 새로운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인간의 인내력에 관한 강렬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우이펑(감독, 프로듀서 / 대만)

알베르토 라스트투치(포폴리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 이탈리아)

조영정(영화사 연구가 / 대한민국)



3. 선재상

수상작(한국): <아는 사람> / 김소윤(대한민국)

심사평: <아는 사람>은 19분동안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복잡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는 젊은 감독인 그녀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를 비춘 것이기도 합니다.

수상작(아시아): <오프-시즌> / 예르자트 에스켄디르(카자흐스탄)

심사평: 연약하고, 풍부하고, 정직하고, 감동적이고 복잡합니다. 감독은 단절된 시골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이야기에 대해 독창적으로 접근합니다.

특별언급: <죽음에 이르는 길> / 구오산피(중국)

심사평: 놀랍도록 뛰어난 작품으로, 감독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선재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모스토파 파루키(감독 / 방글라데시)

베른하르트 칼(뮌헨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 독일)

남다운(평론가 / 대한민국)



4. 올해의 배우상

올해의 남자배우상: <꿈의 제인> / 구교환(대한민국)

심사평: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심사위원의 일이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예술적 노력의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 특히 배우가 배우의 연기를 평가하고 그것에 순서를 매긴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아파게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최고의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신 모든 배우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의 배우상은 출품작 안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줌과 동시에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배우에게 수여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때로는 이 두 개의 조건이 충돌하기도 하는 것이라 심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선 한 배우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바로 기주봉씨입니다. 저에게는 존경하는 대선배이시기도 하고, 그간 다양한 무대와 스크린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이번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모에서도 명불허전의 연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가히 다른 배우들과의 체급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의 취지에 따라 좀 더 새로운 얼굴에게 상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만 후배들을 위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의 남자배우상은 꿈의 제인에서 제인 역할을 연기한 구교환 배우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미스터리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트랜스젠더 제인 역을 황홀하게 연기해 주었고, 말하는 것보다 듣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상업적 필드에서 더욱 기대가 되는 젊은 배우들이 있었지만, 출품작 안에서의 퍼포먼스를 놓고 본다면 이 배우의 연기가 저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올해의 여자배우상: <꿈의 제인> / 이민지(대한민국)

심사평: 버려지는게 두려워 걸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맞춤형 인간으로 살아가는 소현을 만들어낸 배우 이민지에게선 터져나올 앞으로의 연기들이 기다려집니다.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김의성(배우 / 대한민국)

조민수(배우 / 대한민국)



5. KNN 관객상

수상작: <환절기> / 이동은(대한민국)

6. BNK 부산은행상

수상작: <천 시간의 밤> / 비르질 비드리히(독일)

7.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누에치던 방> / 이완민(대한민국)

심사평: <누에치던 방>은 창의적인 구성으로, 시대적인 고찰을 담고, 개인 간의 연대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엿보았고 이에 수상합니다.

8. 비전감독상

수상작 1: <춘천, 춘천> / 장우진(대한민국)

심사평: <춘천, 춘천>에는 인위적 구성과 자연스러운 생기가 공존합니다. 인물과 풍경, 그것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거리에 대한 이해가 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보고 있는 내내 관객을 긴장하게 만드는 영화적 미스터리를, 장우진 감독이 앞으로 가다듬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수상작 2: <나의 연기 워크샵> / 안선경(대한민국)

심사평: 안선경 감독의 <나의 연기 워크샵>은 대상을 관찰하는 깊은 시선이 생기 있는 대사와 흐름을 만들어내는 영화입니다. 더불어 인간은 왜 연기하는지, 연기가 왜 삶을 사랑하는 한 방법인지 볼 수 있었습니다.



9. 대명컬처웨이브상

수상작: <용순> / 신준(대한민국)

심사평: <용순>은 사춘기 소녀의 철없는 사랑과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소녀의 감정을 밀도 있게 잘 표현하였습니다.

10. CGV 아트하우스상

수상작: <꿈의 제인> / 조현훈(대한민국)

심사평: <꿈의 제인>은 한 가출 소녀가 경험하는 대안적 가족의 달콤한 위안과 쓰디쓴 폭력성을 독창적인 스타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꿈과 현실을 오가며 독특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하는 조현훈 감독의 개성 있는 연출과 이민지, 구교환, 이주영 등 젊은 배우들의 빼어난 연기는 한국영화의 미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합니다. 잊기 힘든 잔상을 남기는 이 작품이 보다 많은 관객들에게 다가가길 바라며 CGV아트하우스상을 수여합니다.

11.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나비의 눈물> / 티파니 송(캐나다)

심사평: 위안부라는 국제적인 인권문제를 필리핀과 중국, 한국, 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틀 안에서 담담하게 전하려는 노력이 돋보여 이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12.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수상작: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 임대형(대한민국)

심사평: 유망한 신인 감독(임대형)은 고전 무성 영화에 강렬한 연기, 유쾌한 유머, 고독의 우울함, 매혹적인 사랑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조화시켰습니다. 특히 우리 심사위원단은 가족 내 정서적 관계의 심각한 위기를 묘사하는 독립 영화 제작의 미니멀리스트 접근법을 높게 평가합니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골람 라바니 비프롭(감독, 페스티벌 컨설턴트 / 방글라데시)

에드비나스 폭쉬타(빌니우스영화제 프로그래머 / 리투아니아)

김현수(모퉁이극장 대표 / 대한민국)

13. 국제영화평론가협회(FIPRESCI)상

수상작: <하얀 개미> / 추시엔체(대만)

심사평: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국제영화평론가협회 심사위원단은 등장인물의 심리, 풍부한 상상력, 과감한 시각적 스타일로 심도 깊은 수준의 트라우마를 이입한 영화에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 심사위원**

-심사위원: 엔긴 에르탄(영화평론가 / 터키)

마노즈 바푸자리(영화평론가 / 인도)

장석용(영화평론가 / 대한민국)

14.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 압바스 키아로스타미(감독 / 이란)

15.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 로랑스 에르즈베르그(포럼 데지마주 대표 / 프랑스)



VI.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 마켓배지: 총 47개국 742개 업체 1,381명
 - 세일즈부스: 총 24개국, 157개 업체, 62개 부스
 - 마켓 스크리닝: 총 13개국, 42개 업체, 63편, 68회 상영(마켓 프리미어 50편)
 - 온라인 스크리닝: 총 214편(영화제 상영작 172편 포함)
- * 예산 감소, BIFCOM의 독자 개최 등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일즈부스는 전년도 수준을, 참가자는 소폭 상승하고, 신규 바이어는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다양한 산업군을 포괄한 올해 아시아필름마켓은 작년에 이어 E-IP마켓에서 연이은 현장 계약들이 성사됐고, 참가자의 고른 만족도 속에 알찬 성과를 이루며 마무리되었다.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 2016년 프로젝트 수: 총 27편
- * 전도유망한 신인감독 및 여성감독들의 신진 프로젝트에 주목하여 선정하였고, 3일간 550회가 넘는 미팅을 진행하며, 아시아 최대 투자·공동제작의 장으로서의 위상을 강화

APM 프로젝트 시상 결과

- 부산상: <사랑과 복수> / 에드윈(인도네시아)
- 브라이트 이스트 필름 어워드: <국화와 단두대> / 제제 다카히사(일본)
- CJ 엔터테인먼트 어워드: <화이트 빌딩> / 능 카빅(캄보디아, 프랑스)
- 롯데 어워드: <괴인> / 서은영(한국)
-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프랑스 여자> / 김희정(한국)
- 아르떼상: <화이트 빌딩> / 능 카빅(캄보디아, 프랑스)
- 모네프상: <한국이 싫어서> / 장건재(한국)

E-IP 마켓 시상 결과 [<작품명> 작가 / 출판사 또는 제작사]

- 뉴 크리에이터상(북투필름): <조선변호사 왕실소송사건> 정명섭 / 은행나무
- 뉴 크리에이터상(E-IP 피칭): <스프린터 : 언더월드> 안종준 / (주)올댓스토리



V. 아시아영화펀드 결산

1. 아시아영화펀드(ACF) 2016년도 지원 내역

- 장편독립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총 5편

(아시아프로젝트 4편, AFA 프로젝트 1편), 각 1천만원 지원

- 장편독립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 총 5편

(아시아프로젝트 1편, 한국프로젝트 3편, 베니스영화제 비엔날레 컬리지-시네마 프로젝트 1편), 후반작업 현물지원

- 다큐멘터리 AND 펀드: 총 12편

(아시아프로젝트 제작지원 8편): 2편 각 1천만원 지원, 6편 각 5백만원 지원

(한국프로젝트 제작지원 4편): 1편 2천만원, 3편 각 1천만원 지원

※ 배급지원펀드는 영화제에 상영된 한국 다큐멘터리 중에서 작품성 및 대중성을 갖춘 작품에 지원하며, 올해는 오현진, 고두현 감독의 <옥상 위에 버마>가 선정

- AND 프로그램: 10월 10일(월) ~ 13일(목)

① 모리 타츠야 (다큐멘터리 <Fake> 감독) 특별 강연

② 두카르 체랑 감독 <영겁의 인연>: 'AND 타스코프스키 필름 아시아 토탈트 펀드' 지원작으로 선정

2. 아시아영화펀드(ACF)의 지원 확대 및 협력 사업 성과

- 후반작업지원펀드 신규 파트너 영입

후반 사운드 업체 <플루토사운드>가 신규 파트너로 참여

- 베니스영화제 비엔날레 컬리지-시네마와의 협력 사업 지속

슈바시시 부티아니 감독 <호텔 셸베이션> 후반작업 지원: 2016년 베니스영화제 비엔날레 컬리지-시네마와의 협력사업 지원작 <호텔 셸베이션>

- 인큐베이팅펀드 역대 지원작품 완성과 성과

데이비 추 감독의 <다이아몬드 아일랜드>는 2014년 ACF 인큐베이팅펀드 지원 이후 제69회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 장편경쟁부문 SACD상을 수상했고, 프랑스 카부르영화제



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또한 독일뮌헨국제다큐영화제에서 상영됐으며, 제21회 부산국제영화 아시아 영화의 창 부문에서도 상영됐다.

3.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극영화: 8편 (아시아 5, 한국 3) / 다큐멘터리: 8편 (아시아 6, 한국 2)

***<다이아몬드 아일랜드> | 아시아 영화의 창 | 데이비 추**

2014 ACF 인큐베이팅펀드

***<견습생> | 아시아 영화의 창 | 부준평**

2012 ACF 인큐베이팅펀드

***<만달레이로 가는 길> | 아시아 영화의 창 | 미디 지**

2012 ACF 인큐베이팅펀드

***<호텔 샬베이션> | 아시아 영화의 창 | 슈바시시 부티아니**

2015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자비의 여신> | 아시아 영화의 창 | 데첸 로데르**

2016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혁명을 위한 제안> |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쿠쉬부 랑카, 비나이 슈클라**

2014 AND 동서아시아펀드

***<망명일기> |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틴 원 나잉**

2015 AND BNK 부산은행펀드

***<시네마 트레블러> |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셸리 아브라함, 아밋 마데시아**

2014 AND BNK 부산은행펀드

***<무단외출> |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경쟁 | 라우첵훗, 첸징리안**

2015 동서아시아펀드

***<선데이 뷰티 퀸> |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경쟁 | 베이비 루스 빌라라마**

2016 AND 비프메세나펀드

***<철길 위의 인생> |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경쟁 | 솜푹 칫게이손푹**

2014 AND 비프메세나펀드

***<선두> |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경쟁 | 원호연**

2015 AND 비프메세나펀드

***<옥상 위에 버마> |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경쟁 | 오현진, 고두현**

2015 AND 비프메세나펀드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 뉴 커런츠 | 임대형**

2016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꿈의 제인> |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 조현훈

2016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분장> |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 남연우

2016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결산

1. **기간:** 2016년 9월 29일(목) ~ 10월 16일(일) (18일간)

2. **장소:** 영화의전당,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부산아시아영화학교 등

3. **참가자:** 100여명

(펠로우 16개국 24명, TA 5명, 인턴 12명, 교강사진 13명, 현장스태프 등 기타 46명)

4. 지도교수진

- 교장: 차이밍량(대만)
- 연출 지도 교수: 비목디 자야순다라(스리랑카)
- 촬영 지도 교수: 보구밀 고드프레요프(폴란드)

5. 주요 프로그램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안녕, 삼촌!> Hello, Uncle! | HD | 20min | Color
- <씨클리드> Cichlid | HD | 15min | Color

② 워크숍 및 멘토링(연출, 촬영, 프로덕션디자인, 사운드, 편집)

③ 특강 7회: 프로덕션디자인(김희수), 편집(최민영), 블랙매직카메라(김영철),

연출특강(차이밍량), ARRI 카메라 특강(빌 베네트 Bill Bennett) 공동제작(이자벨 글라상),

DI 특강(오병걸)



- ④ 작품 시사 3회: 차이밍량(작품명: 가을날) 비묵디 자야순다라(작품명: 버려진 땅),
보구밀 고드프레요프(작품명: 모드리스),
- ⑤ AFA 네트워크 1회: 총 참석인원 60여명

6. 장학금 수여

- ① 동서대학교에서 펠로우 2인 각각 현금 5백만원 수여
 - 수상자: 쉐팀키안(말레이시아)
 - 수상자: 마리아 사예드(인도)
- ② ㈜디엠라이트, 루모스에서 촬영전공자 2인 각각 LED 조명기 1대 수여
 - 수상자: 이두희(대한민국)
 - 수상자: 베라파스 파카안쿨(태국)
- ③ ㈜뉴욕필름아카데미 장학생 2인 뉴욕과 베이징캠퍼스의 4주 영화워크숍 참여
 - 수상자: 엘다르 시바노브(카자흐스탄)
 - 수상자: 레이첼 리우(싱가포르)

VII.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 총 참석인원 5,759명

국내게스트 2,640명

해외게스트 677명

시네필 1,061명

마켓 1,381명



* 단순 참가(방문)자 제외 & 프레스 제외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